

독일오픈배드민턴 혼복 '금'... 화순실고 출신 이 용 대

'올림픽 금' 무르익는다

단식보다 혼합 복식에 적합
동료 이효정과 환상의 호흡
'베이징'서 무적 과시 기대

화순실고 출신 이용대(21·삼성전기·사진)의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 꿈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용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독일 플레임엔더투레인우르홀에서 열린 2008 독일오픈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혼합복식에서 팀 동료 이효정과 함께 짝을 이뤄 금메달을 따냈다.

특히 이용대는 이효정과 32강 전부터 4강전까지 단 한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컨디션을 자랑하며 결승에 올라 중국의 한빈·양유조를 2-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이용대는 역시 팀 동료인 정재성과 조를 이뤄 남자복식에서 한국의 이재진·황지만조에게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이용대는 이번대회에서 혼합복식 금 1, 남자복식에서 은 1개를 따내며 베이징올림픽 메달 전망을 밝게 했다.

화순실고 출신인 이용대는 179cm, 70kg의 호리호리한 체격에 출중한 외모, 뛰어난 실력으로 많은 팬을 끌고 다닌다.

화순초등학교 2학년때 배드민턴에 처음 입문한 이용대는 4학년때부터 각종 전국대회를 석권하며 일찌감치 천재성을 드러냈다.



5학년 때 6학년 선배를 이기고 개인단식, 복식, 단체전 3관왕에 올라 배드민턴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용대는 화순실고 시절 그의 은사인 박찬웅 전 화순실고 감독을 만나 복식선수로 전환, 자신의 재능을 극대화 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용대는 화순실고 3학년 7월, 2005아시아주니어 배드민턴선수권에서 혼합복식과 남자복식 2관왕에 올라 주니어 무대 최강자로서 군림하다니 2006년 졸업 후에는 독일오픈에서 남자복식 우승을 일구며 화려한 성인무대 신고식을 치렀다.

이후 이용대는 2006 인천세계주니어배드민턴 복식1위·단체1위·혼복1위, 2007 요넥스 코리아오픈 남자복식1위, 스위스 오픈배드민턴 슈퍼시리즈 혼복1위, 요넥스 코리아오픈 슈퍼시리즈 혼복1위 등 각종 국내·외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한 발 한 발 베이징올림픽 메달을 향해 뛰어가고 있다.

박찬웅(44) 전 화순실고 감독은 "용대는 코치가 필요없는 선수로 스스로 진화할 줄 알기 때문에 방향만 제시해 주면 놀라 정도로 빠른 성장을 한다"며 "선수생명이 짧은 단식 보다는 복식선수 전환을 권유한 것이 적절했고, 이번 베이징 대회에서도 반드시 메달을 따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히어로즈 정민태 'FA'

연봉 협상 난항... 자진 퇴단 요청 받아들여

프로야구 '제8구단'으로 새롭게 참여하는 우리 히어로즈의 베테랑 투수 정민태(38·사진)가 자유계약선수(FA)로 풀린다.

히어로즈는 4일 연봉 재계약 협상에서 난항을 겪었던 정민태가 자진 퇴단을 희망함에 따라 조건 없이 FA로 풀기로 하고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공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봉이 3억1천80만원이었던 정민태는 나머지 7개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재기를 노리던 정민태는 히어로즈가 종전 연봉에서 대폭 삭감된 8천만원을 제시하자 퇴단을 요청했다.

1999년 20승과 2000년 18승으로 2년 연속 다승왕을 차지했던 정민태는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좌절을 경험한 뒤



현대로 돌아와 2003년 연봉 5억원 시대를 열었고 그해 시즌 17승으로 생애 세 번째 다승왕과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차지했다.

한편 정민태 외에 송지만(종전 연봉 6억원)과 김수경(4억원), 이승용(3억5천만원), 김동수(3억원), 전준호(2억5천만원) 등 고액 연봉자들도 KBO가 재계약 시한으로 정한 7일까지 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FA로 풀릴 수 있어 행보가 주목된다.

다저스 박찬호 15일 중국 시범경기 참가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에서 빅리그 재입성을 노리는 박찬호(35·사진)가 중국에서 열리는 시범경기에 참가한다.

다저스 구단은 4일 홈페이지를 통해 15~16일 중국 베이징 우크송 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시범경기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박찬호는 귀홍즈, 후진룡 등 대만 선수들과 함께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앤드루 존스(외야수), 노마 가르시아파라(내야수) 등 유명한 선수들도 있으나 주전 대부분은 이번 중국 원정에서 빠져다는 점에서 박찬호에게 썩 달가운 일만은 아니다.

한 때 메이저리그에서 동양인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을 세우는 등 아시아 출신 대표 선수로 각광을 받았던 박찬호는 이번 중국행이 상징성은 있지만 장거리 비행에 따른 컨디션 저하 등이 예상돼 빅리그 재입성 목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이슨 슈미트, 에스테반 로아사 등과 5선발을 다투고 있는 이 때 경쟁자들은 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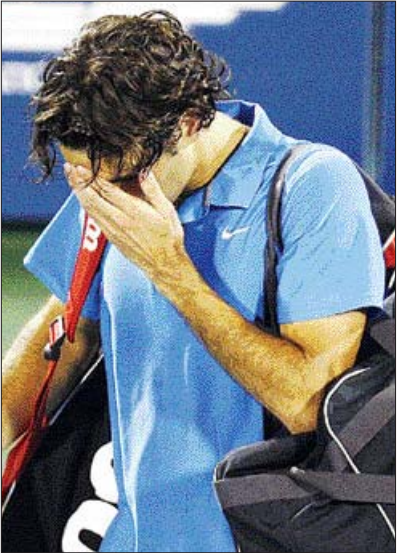


하게 베로비치에서 훈련하게 돼 박찬호가 입을 손실은 분명해 보인다.

다저스는 중국 원정을 전후해 전훈지를 옮긴다. 3월21일부터는 애리조나주로 이동, 캡터스리그 팀과 대결하고 28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LA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 등과 게임을 벌인 뒤 4월1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른다.

최 위원은 "한국 농구의 세계화를 위해 세대 교체의 기회를 만들고 대학이나 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상비군을 운영하겠다. 외국의 장신 선수들에 대비해 체력을 강화하고 KBL의 협조를 얻어 탁력한 팀의 외국인 선수들을 훈련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농구협회는 10일까지 남자 대표팀 감독에 대한 지원을 받은 뒤 강화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사령탑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황제' 페더러 43개월 만에 1회전 탈락

'황제' 로저 페더러(세계랭킹 1위·스위스·사진)가 3년7개월 만에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및 메이저대회 1회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페더러는 4일 아랍에미리트 연합(UAE) 두바이 두바이 테니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총상금 142만6천달러가 걸린 ATP 투어 두바이 테니스 챔피언십 1회전에서 앤디 머레이(11위·영국)에게 1-2(7-6(8-6)-3-6-4-6)로 패했다.

두바이 테니스 챔피언십 영국 머레이에 1-2 무릎

개인 통산 12차례나 메이저대회 단식을 제패한 페더러가 1회전에서 탈락하기는 2004년 8월 미국 신시내티 마스터스시리즈에서 도미니크 에르바티(195위·슬로바키아)에게 패한 이후 43개월 만이다.

지난 1월26일 올헤 첫 메이저대회 호주오픈 4강에서 노박 조코비치(3위·세르비아)에게 무릎을 꿇은 뒤 근 40일 만에 실전에 나선 페더러는 예외의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완패해 우려를 자아냈다. 특히 두바이 챔피언십은 페더러가 지난 5년간 네 차례나 우승컵을 들어 올려 안방이나 다름없는 대회라 충격이 더했다.

2년 전 신시내티 마스터스시리즈 32강전에서 페더러를 꺾었던 머레이는 이날 승리로 상대 전적에서도 2승1패로 앞서갔다.

강진서 세계 청소년 태권도대표 선발전

7일부터 13일까지

강진군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세계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표 선발과 한국 중·고교 태권도연맹회장배 품새 대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강진군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1천600여 명의 선수와 원인이 참가한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오는 5월 터키 이즈미르에서 열리는 제7회 태권도 세계주니어선수권 대회 출전권이 주어진다.

태권도연맹회장배 품새 대회는 12일, 13일 양일간 개인전과 단체전 등이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5일(수)
 - ▲봄철 중학축구 결승전(13:30·KBS2)
 - ▲V리그 여자부(GS칼텍스:KT&G)(16:30·KBSNSPORTS) 남자부(대한항공:삼성화재)(19:00·KBSNSPORTS)
 - ▲프로농구 <오리온스:동부>(18:50·SBS스포츠)
- 6일(목)
 -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레알 마드리드:AS로마)(04:30·MBCSPN)

남자 농구대표팀 감독 공모
최인선 농구 해설위원 지원

최인선(58) 엑스포즈 농구 해설위원이 남자 대표팀 감독 공개 모집에 지원서를 냈다. 최 위원은 지난달 25일 대한농구협회가 남자 대표팀 감독 공개 모집 계획을 밝힌 뒤 처음으로 원서를 낸 농구인이 됐다.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과 행복, 건강이 행복을 키워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두가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 및 보충
-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예방
- 눈의 건조감과 시력 개선
- 피부 노화 방지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 항염증 작용
- 항암 예방 효과
- 항노화 효과
- 항염증 효과
- 항산화 작용
- 항노화 효과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nene.com.kr